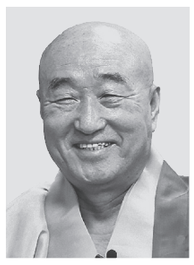
# 無明 밝히는 지혜의 등불로 화합을…

## 부처님을 향한 마음

생명나눔실천본부장 이사장
일면 스님



부처님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무명(無明)속에 헤매는 중생들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희망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음 · 욕심 · 성냄(三毒)으로 끊임없이 생사윤회(生死輪廻)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하기를 기원하는 대 원력이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오신날 우리들은 진실한 마음의 등을 밝혀 진리에 의지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원력과 참회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희망으로, 여럿을 하나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빛과 힘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 지구공동체에 희망을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법만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서로를 존중하며 이로써 세상이 편안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우며 사람들 사이의 차별과 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부처님의 탄생게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자 마음에 새기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는 진정한 불자들의 봉축하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불교환경연대는 무너져가는 지구공동체를 되살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일회용품 없는 부처님오신날을 제안하며 자원사용과 쓰레기를 줄이고 물과 에너지를 절약하여 맑고 청정한 국토를 후세에 물려줍시다.

## 백만 원력으로 평화 기원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불기 2563년은 백만서원의 원력결집을 선포한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재가불자는 삼보외호를 위한 원력을 더욱 굳건히 하고, 이를 통해 종도로서의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여 사부대중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수행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의 어지러움을 전국 방방곡곡의 따뜻한 등불로 밝혀, 그 공덕으로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 불자들 모두는 거룩하신 세상의 스승이신 부처님의 뜻에 따라 우리 사회에 희망과 나눔의 등불이 되기를 서원합니다.

## 비폭력과 평화 실천

강창일
국회 정각회 회장



현대불교신문을 사랑하시는 사부대중 여러분! 부처님께서 자비광명으로 모든 중생의 앞길을 밝혀 주시기 위해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자비(慈悲)에 바탕을 둔 보살행은 중생의 무명(無明)을 깨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의 평화를 실천하는 기반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기록한 초기 경전은 폭력을 무서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점에서 모든 존재가 같기에 다른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라고 전합니다. 자비(慈悲)는 무한히 사랑하는 마음(慈)과 무한히 슬퍼하는 마음(悲)의 하나 됨을 뜻합니다. 비폭력과 평화를 실천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출발인 자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 지혜와 자비의 광명등

윤성이 동국대 총장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 오늘, 불자 여러분들은 모두가 부처님의 성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만의 원력을 세워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조계종립 동국대학교는 건학 113주년을 맞이하여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선포하였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소통과 화합' '존중과 포용' '기여와 참여'를 통해 공헌으로 존경받는 조계종립대학, 세계 속의 명문 사학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밝힌 마음의 등불이 지혜와 자비의 광명등이 되어 부처님께서 오시는 길을 더욱 밝게 비춰 드릴 것입니다.

## 마음속 부처님 되새기자

김상규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새싹은 연두색의 싱그러움을 뽐내고 꽃들은 장엄하게 꿈의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를 둘러싼 자연은 이미 부처님의 자비로 가득한 극락세계를 구족했습니다.

단지 인간들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 사회가 극락이 되느냐, 지옥으로 변하느냐는 우리들 마음에 달린 것 같습니다. '일체유심조'란 부처님 말씀처럼 불국토는 우리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께서 확고하게 자리 잡도록 해야겠습니다. 불성을 키우는 데는 부처님을 믿는 것보다 나은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 전법으로 밝은 세상을

방창덕
포교사단 사단장



금년 봉축메시지는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입니다. 이는 부처님의 탄생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의 또다른 표현이며, 지혜와 자비, 수행과 포교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중생이 있기에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기에 중생이 있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시대의 언어로 전하는 마음과 세상, 자비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국의 포교사와 함께 공유하며 전법으로 실천하겠습니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수행하면서, 이마를 맞대고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일을 신바람나게 할 것입니다.

## 진솔한 가르침 절실한 오늘

김성규
한국교수불자연합회 회장



"이 세상에서 사람에게 으뜸가는 재산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한 행위가 안락을 가져옵니까? 맛중에 참으로 맛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입니까?"하고 알라바카가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서 믿음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덕행(德行)이 두터우면 안락을 가져오고, 진실이야말로 맛 중의 맛이며, 지혜롭게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이라 할 수 있다."라고 답하십니다. 진솔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절실한 오늘입니다.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법을 펴신 2600년 전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 전도선언 같은 하루를

하재길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극락이 아닌 사바세계에 몸을 나투시어 중생들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참 깨달음의 진리를 다시 되새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둘이서 한 길을 가지말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전도선언의 말씀처럼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大慈大悲)로 평화와 행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합장 발원합니다.

## 대학생 전법이 불교 중흥

박유진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올해는 캠퍼스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빛이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게 비추어졌습니다. 전국의 청년 대학생 불자들이 전법과 포교에 온 힘을 다하며 불교를 중흥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많은 청년 대학생들이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불성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올해, 저희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온 누리에 평화가 자리 잡기를 기원합니다.

## 차별 없는 모두가 한마음

김성림
국제포교사회 회장



저희 국제포교사회는 '상선약수(上善若水)'의 마음과 자세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조력할 것입니다. 물은 겸손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지만 언제나 아래로 흐르며 낮은 곳을 공평하게 적셔줍니다.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국제포교사회에서 활동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마음이라 저는 자신합니다. 자국을 떠나 한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는 이주 노동자들도 함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의 자리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 마음의 본성 밝히길

박수관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회장



부산은 불도(佛都)라고 불리는 불교 중심 도시입니다. 부산 불자들의 신심이 굳건해 한국불교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이곳에서 시작된 기도가 대한민국을 덮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총연합신도회장이 된 것은 큰 영광이라 생각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근원이 되는 도시로 나아간다면 그 어떤 노력도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깨달아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마음의 본성, 즉 지혜와 사랑이 밝은 등처럼 빛나고 세상을 밝히길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남해 제일 관음기도 도량

금오산 향 일 암

사부대중일동

전남 여수시 돌산읍 향일암로 60
☎ (061)644-4742 www.hyangiram.org